

# 도교육청 학습동아리 '바들모', 섬마을 아이들에 웃음 선사

## 부안군 위도초 에서 인형극 공연 펼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습동아리 '바들모(회장 김은주)'는 23일 부안군 소재 위도초등학교에서 인형극 공연을 펼쳤다.

지난 2015년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공연에 이어 올해는 섬마을 어린이들을 찾았다.

위도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영차 영차, 쑥!' 공연이 진행되었다.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학습동아리 '바들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동아리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문화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습동아리 '바들모(회장 김은주)'는 23일 부안군 소재 위도초등학교에서 인형극 공연을 펼쳤다.

##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대한노인회, 업무 협약 체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용식)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회장 이광부)가 26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약에는 양 단체회장 및 임원,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양 단체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대상자(취약노인분야)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2014년 송파 세모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소속 직원 및 회원들과 좋은 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연탄은행, 완산구 저소득 가정에 선봉기 70대 전달

전주시 완산구는 저소득 가정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주연탄은행 후원으로 26일 선봉기 70대를 전달했다.

이 날 마련된 '선봉기 보내기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기업체 후원 모금이 아닌 개인들의 후원 모금으로 구입해 더 큰 의미가 있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에 방난방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과 저소득가정이 우리가 전달한 선봉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 힘든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세상을 만들어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전주연탄은행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완산구에서도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익산시민 애국울림 콘서트' 개최

6·25전쟁 발발 제 67주년을 맞아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6월 25일 10시 익산 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가 주관한 '익산시민 애국울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열렸으며, 추모시 낭송(여원공연시낭송연구회), 살풀이 공연(익산시립무용단), 오페라나 연주(별빛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500여명의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우실 지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67년 전 자유 수호에 앞장섰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 (주)960/912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9-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7-86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655	진안지사 433-3064
호주시사 010-9645-9355	광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3396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완산서 효자지구대,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규)는 최근 무단횡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KT 사거리 등 2개소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회원들과 함께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고는 보행자와 이륜차 사고로 전체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 피해자 대부분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 횡단 시 반드시 좌우살피기 해줄 것과 이륜차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자는 전단지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삼민 기자



## 완산구-소피아여성의원, 저소득층 요실금 무료 시술 지원

전주시 완산구와 소피아여성의원(의원장 김은정)이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을 3명에게 무료 시술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요실금이 단순히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시술을 받은 송모씨(경화동), 은모씨(효자동)는 모두 요실금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 받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추천을 통해 시술을 받게 됐다.

두재균 소피아여성의원 원장은 "어려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요실금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무료 시술 재능 기부를 통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완산서 남문지구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활동 나서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대장 강창현)는 26일 관내 주거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과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청년층도 쉽게 피해를 보고 있어 주거 밀집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시 범죄가 우려되면 경찰 관서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삼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 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